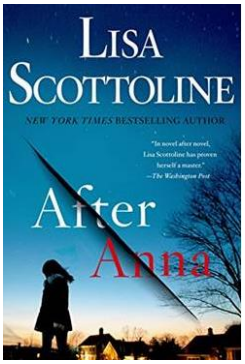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AFTER ANNA
가제 : 애나가 돌아온 이유
저자 : Lisa Scottoline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4월 10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3주간「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최고 순위 2위) / 아마존,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 미국 출판협회 선정 4월 인디 넥스트 픽(Indie Next Pick)**
***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딸은 내가 기억하는 그 딸일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와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한 성 매매, 교활한 속임수가 결합된 놀라운 반전!**

딸아이를 낳고 일년도 지나지 않아 생이별을 해야 했던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반이 되어 훌쩍 커버린 딸과 다시 만난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딸 애나는 십 년 넘게 외면했던 엄마 매기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재혼 후 완벽하다 싶을 만큼 행복하게 살고 있던 매기의 삶 속에 들어온다. 그러나 딸과 함께 지낼 날만을 소망하던 매기의 바람은 산산이 조각난다. 애나가 누군가의 손에 목이 졸려 잔혹하게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된 것으로 모자라, 유력한 용의자로 매기의 남편, 노아가 체포된 것이다.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운 매기는 마침내 찾은 운명 같은 사랑이라 믿었던 남편을 의심해야 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첫 번째 결혼에서 애나를 낳은 후, 심각한 산후 우울증이 매기를 덮쳤다. 매기의 증상이 우울증을 넘어 정신병 수준에 이르자 애나의 생부 플로리안은 이혼을 강행했고, 법원은 태어난 지 반 년밖에 안된 애나의 양육권을 플로리안에게 부여했다. 병 때문에 매기는 아이를 키우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 때부터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매기는 애나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플로리안이 프랑스 리용에 있는 사립학교에 애나를 보냈다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애나가 고등학교는 미국 메인 주에 있는 엘리트 기숙학교로 전학을 왔고 그곳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도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애나는 프랑스에서도,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한 번 만나고 싶다는 매기의 요청을 거부했기에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절실했지만 볼 수 없었다. 대신

매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손 편지를 써서 애나에게 보냈다. 애나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지만, 고마운 소셜 미디어 덕분에 애나의 계정을 찾아서 몰래 근황을 살피는 것으로 그리움을 달랬다.

아내와 사별한 후 아들 칼렙을 혼자 키우던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 노아는,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삶은 꿈꿀 수 없으리라 단념하고 살던 중 매기를 만났다. 두 사람은 금방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노아는 운동 불능증으로 말도 더디고 행동도 느린 칼렙을 친자식처럼 진심으로 보듬어주고 아껴주는 매기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매기 역시 비극으로 끝난 첫 번째 결혼이 남긴 상처에서 내내 벗어나지 못하다가 따뜻하고 자상한 노아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칼렙과 함께 하면서 아픔이 조금씩 아무는 것을 느꼈다. 한 가족이 된 세 사람은 하루하루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을 이어갔다. 그 때 애나가 매기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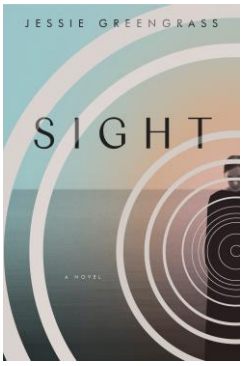
처음에는 학교에서 전화로 연락해온 매기는 그 동안 답장 한 통 없이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말로 매기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러다 얼마 후, 애나의 생부인 플로리안과 그가 재혼한 가족들이 해외로 휴가를 떠났다가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고, 오갈 곳이 없어진 애나는 매기에게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잃어버린 딸을 늘 그리워해온 매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노아는 흔쾌히 수락했을 뿐만 아니라 매기만큼이나 기뻐했다. 첫 만남의 어색함도 잠시, 애나는 새로 생긴 이복동생을 잘 보살피며 별 문제 없이 매기, 노아의 집에 일원이 됐다. 하지만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소소한 생활 규칙을 극도로 갑갑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뭐든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을 피워 매기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것이 엄청난 비극의 전조였음을, 그 때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애나가 노아, 매기의 집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진 시체로 발견되고, 경찰은 노아가 의붓딸을 성적으로 유혹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했다는, 믿기 힘든 결론을 내렸다. 애나가 그간의 추행을 다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목을 졸랐다는 것이다. 나라 전체가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추악한 살인에 관심을 집중하며 노아를 인면수심의 범죄자로 몰기 시작하고, 매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누구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큰 혼란에 휩싸인다. 소설은 매기와 노아의 시선을 번갈아 따라가고 노아가 재판정에서 선고를 받는 날까지 벌어진 일들을 거꾸로 추적하는 형식으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정말 노아가 애나를 죽였을까? 노아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벌였을까? 애나는 누구일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애나는 매기가 기억하는 그 딸일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인신매매와 어린 청소년들을 이용한 성 매매, 교활한 속임수가 결합된 놀라운 반전이 결말을 장식한다.

<저자 소개>

리사 스코토라인(Lisa Scottoline)은『Rosato & DiNunzio』시리즈와『One Perfect Lie』,『Most Wanted』등 여러 작품이「뉴욕타임스」베스트셀러에 오른 에드가 상 수상 작가다.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실물 책이 3천만 부 이상 판매됐으며 전 세계 35개국에 출판됐다.

제목 : SIGHT
가제 : 이미지와 마음
저자 : Jessie Greengrass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18년 2월 22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문학소설



*** 영국의 명망 있는 문학상인 '여성 소설가 상(THE WOMEN'S PRIZE FOR FICTION)' 올해 결승작**
*** 「인디펜던트」 선정 '올해 주목해야 할 작가', 「아이리시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끝내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소설 속 여성 화자, 둘째 아이를 몸에 품은 그녀는 이 길지 않은 소설을 통하여 마음과 육체에 대한 생각을 깊이 이어간다. 10여 년 전, 투병하던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다 떠나게 해드린 시절과, 정신분석가 할머니와 보내곤 했던 유년기의 여름 방학들, 그리고 엄청난 용기를 내서 첫째 아이를 가졌던 시기까지,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오게 하고, 또 보내는 것이란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 기억의 사이사이에는 의학 역사상 의미 있는 사건들이 배치된다. 뢴트겐의 X 선 투시기 발견, 프로이트의 심리분석, 현대적인 수술의 기원과 임산부의 몸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에 이르기까지 현대 의학의 다양한 발견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인간의 몸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이 얼마나 인간을 더 잘 알게 해주었는지, 화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관하여 깊이 생각을 펼쳐 보인다.

죽음과 탄생에 대한 생각의 흐름을 '버지니아 울프처럼' 소설의 형태로 엮어내는 역작

화자는 둘째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분리에 대해 생각한다. 뱃속에 처음 자리 잡을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아기는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고, 태어나서도 엄마 몸에서 좀처럼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아이는 혼자 걸으려 하고, 손을 잡아줘도 뿌리치고, 자기 생각이 생기고, 그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자박자박 걸어 다니는 딸과 마주 앉아 있을 때, 그 조그마한 얼굴에 선명히 떠오르는 기분과 복잡미묘한 감정을 보면서 주인공은 자신과 서서히 분리되고 있는 딸의 존재를 새삼 느낀다. 성장한다는 건 결국 태어날 때부터 부모와 얽혀있던 물리적, 감정적 타래를 끊어내는 과정이 아닐까. 주인공은 지금 눈 앞에 있는 첫째 아이의 연이은 변화들이 끝내는 어떤 이미지로 남게 될까 곰곰이 생각한다.

이미지, 눈에 보이는 것. 이미지가 전부라는 주인공의 생각은 처음 딸을 가질 지 고민하던 시기에 많이 생각했던 흑백 영화와 엑스레이로 이어진다. 뤼미에르 형제가 텅 비어 있는 스크린에 깜박이는 흑백의 이미지가 살아 움직이는 영화를 맨 처음 세상에 선보인 때는 1895년 12월 말이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뤼미에르 형제는 오후 내내 줄지어 기다린 첫 관객들 앞에서 최초

의 영화 상연회를 열었다. 공기까지 얼어붙을 것 같은 추운 날씨에도 카페에 빼곡히 설치된 의자는 빈자리가 없었다. 마침내 영화가 시작되고, 커다란 화면에 두 형제 중 형인 오귀스트가 자신의 어린 딸아이를 팔에 안고 어항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작은 두 발을 단단히 붙잡아서 아이가 몸을 어항 위로 구부려 수면 위를 볼 수 있게 지탱해주는 모습에 이어, 한여름에 촬영된 뷔르츠부르크의 풍경이 펼쳐졌다.

뤼미에르 형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무렵, 대학에서 물리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던 뢴트겐은 X선에 관한 최초의 연구 결과를 담은 첫 번째 논문을 준비했다. 겨울의 희미한 빛마저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두툼한 커튼이 내려진 연구실에서 그는 열지 않고는 속을 볼 수 없는 불투명한 고체의 내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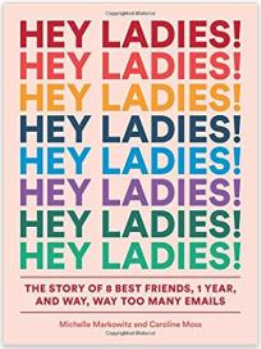
영화와 의학,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영역에서 이토록 비슷한 업적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인공이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혹은 될 수 있을지 한창 고민하던 시기에 내내 머릿속을 떠다녔다. 다 큰 성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개인적인 욕구가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 한 생명을 무사히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남편 요하네스의 부드럽지만 끈질긴 설득에도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던 주인공은 뤼미에르 형제의 첫 영화에 담긴 아기와 아버지의 모습,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했던 뢴트겐의 노력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마침내 부모가 되기로 결심한다. 일어나지 않아 알 수 없는 일은 보이지 않는 물체와 같고, 결국 마법 같은 기술을 통해 눈 앞에 드러날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처럼 겪어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음을, 주인공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심리분석을 시작하고 발전시킨 과정과 딸 안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연구들, 의사인 존 헌터가 질병 치료법을 찾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쳐 실험했던 일들, 그리고 화가와 함께 협력하여 임신한 여성의 해부도를 완성한 일 등, 주인공의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학과 과학의 역사는 그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 정신분석가 할머니와의 기억과 절묘하게 결합된다. 주인공이 스물한 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낡은 집에서 점점 무너지는 엄마를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홀로 간호해야 했을 깨달은 일들, 모녀의 관계와 한계, 그 깨달음이 자신의 딸과 태어날 아이에게 투영될 때 느껴지는 생경한 느낌들도 함께 펼쳐진다. 때로는 시처럼 서정적이고 때로는 역사서처럼 객관적인 문체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계속해서 귀 기울이게 하는, 묘한 힘이 느껴지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시 그린그래스(Jessie Greengrass)는 캠브리지에서 철학을 공부했다. 『An Account of the Decline of the Great Auk, According to One Who Saw It』으로 엣지 힐 단편 소설상(Edge Hill Short Story Prize)과 서머싯 몸 상(Somerset Maugham Award)을 수상하였으며 PFD/선데이 타임스 신인 작가상 결승 후보에 올랐다.

제목 : HEY LADIES!
가제 : 헤이, 레이디스!
저자 : Michelle Markowitz
출판사: Abrams Image
발행일: 2018년 5월 1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일반소설/여성/유머



*** 아마존 전체 54위 분야 베스트셀러**
*** 700만 명 이상이 구독하는 정보 뉴스레터 「The Skimm」 선정 추천 도서(Skimm Picks)**
*** "큰 행사를 준비할 때의 고무된 감정, 그리고 복잡한 물류 수송 과정, 예산을 금세 넘어서는 막대한 비용과의 싸움을 풍자하며 200쪽이 넘는 인포그래픽에 담아낸 책" - 『뉴욕타임스』**

나이와 직업, 성격은 모두 다르지만 그룹을 이뤄 우정을 나누는 여성들의 코믹한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독특한 책이 나왔다. 재미 있는 글과 정보를 공유하는 미국의 인기 웹사이트 '더 토스트(The Toast)'에서 동명의 제목으로 게재된 칼럼을 확장시켜 20대와 30대 여성 여덟 명이 1년 동안 와글와글 함께 떠들고, 웃고, 울고, 싸우고, 고민하는 순간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소설이다. 이들이 이메일과 트소셜 네트워크 메시지 창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말이다. 1월 1일, 6년 지기 친구들이 단체 이메일을 통해 서로의 새해 결심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1년간 월별로 그 달에 가장 중요한 사건 혹은 행사를 중심으로 흥미진진하게 이어진다. 현존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모조리 등장하는 재미 있는 형식에 중간중간 이들이 머무는 곳과 사건이 벌어진 현장, 중요한 정보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하여 읽는 재미를 더한다.

저널리스트를 꿈꾸는 케이티는 기자로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는 다짐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간간히 일감을 얻는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케이티의 궁극적인 목표는 타임지 온라인 사이트에 실릴 만한 기사를 쓰는 것이다. 시시껄렁한 뉴스보다는 유럽 쪽 정세를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이메일로 쓰면서 케이티는 밤새 다 같이 퍼 마시고 놀던 파티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소식도 전한다. 브룩클린과 맨해튼 도심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머지 일곱 명의 친구들은 케이티의 전화기를 찾으러 나서는데, 전날 머물렀던 레스토랑에 들른 케이티는 어느 잘 생긴 남자로부터 잃어버린 전화기를 돌려 받는다. 드라마처럼 마주친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스파크가 튀고, 핑크빛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마침 근처에 있다가 지켜본 몇몇 친구들이 속보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나머지 일곱 명의 친구들은 두근대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호들갑을 떨며 잔뜩 부푼 마음을 함께 나눈다.

젠의 새해 목표는 사랑하는 남자친구 브래드에게 '진심에서 우러난' 프로포즈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아내가 될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얼마든지 수락하겠다는 뜻을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겠다는 다짐을 친구들에게 전한다. 평소에도 브래드에게 푹 빠져서 연애 이야기만 하는 젠

이기에 그녀의 계획에 대부분의 친구들은 찬성한다. 그러나 매번 바람 맞고 실연만 당해온 니콜은 괴로워한다. 새해를 다 같이 맞이하려고 모인 새해 전야 파티에서도 니콜은 30분간 욕실에 틀어박혀 눈물 콧물을 쏟아야 했다. 며칠 전에 분명 적극적인 호감을 드러내면서 파티에 같이 가겠다고 약속한 남자가,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불행은 매번 자신에게만 찾아온다는 생각으로 우울해하는 니콜을 친구들은 따뜻하게 위로하면서도 사람 좀 잘 보고 고르라는 잔소리를 잊지 않는다.

이들 외에도 앨리와 그레이시, 애슐리, 모건, 케이틀린까지 단짝 여덟 명은 답장에 답장이 이어지는 이메일을 계속 주고받는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하나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충동적이고, 제멋대로에 통제가 안 되는 괴짜들만 모여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서로를 끔찍이 아끼고 챙기는 마음만은 진심이라 계속 정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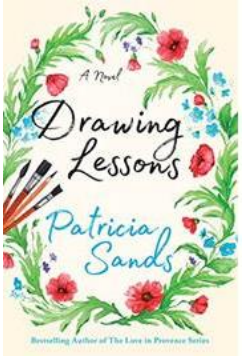
여름이 되고, 새해 첫 날 만난 남자 토퍼와 연인이 된 저널리스트 케이티는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욕 먹을 상황에 처한다. 다들 자기 주장이 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달라서 의견 조율하기가 힘들었던 합동 휴가 계획이 마침내 실현되고 꿈꾸던 휴가가 시작된 그 즈음에 하필 토퍼가 모두의 생각과 달리 형편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른 여자와 몰래 바람을 피우다 케이티에게 딱 걸린 것으로 모자라, 휴가지에서 인사불성이 될 만큼 취한 상태로 여자들이 모여서 잘 준비를 하는 방에 벌컥 문을 열로 들어와 니콜을 향해 먹은 걸 다 토해버린 것이다! 온 방안이 엉망이 되고, 만취한 그를 끌어내느라 전부 곤혹을 치르는데 다음 날, 케이티는 모두를 놀라게 한 메시지를 전한다. 토퍼에 대한 친구들의 감정이 별로 안 좋다는 건 알지만 끝낼 생각이 없고 바람 피운 것도 눈감아주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이다.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는 친구들의 반응은 상당히 흥미롭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브래드에게 프로포즈를 받은 젠의 결혼식 날이 잡히면서 이들에게 가장 거대한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 과제가 떨어진다. 이메일마다 책의 제목처럼 '헤이 레이디스!'라는 활기찬 인사말로 시작하는 여덟 명의 끝없는 수다와 의논, 의견 충돌 속에 과연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친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함께 준비한다는 벅찬 기쁨과, 예상보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찾아온 충격을 동시에 느끼면서 다 집어 던지고 싶을 만큼 챙길 것도 많고 고려할 것도 많은 상황을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다.

각자가 처한 상황, 형편, 직업에 따라 같은 일도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최신 미디어를 통한 소통 방식을 통하여 생생하게 그려낸 재미 있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미첼 마코위츠(Michelle Markowitz)는 작가 겸 프로듀서로 「뉴욕타임스」, 「헤어핀」, 「뉴욕 매거진」, '투데이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여러 간행물과 방송에 작품이 소개됐다.

제목 : DRAWING LESSONS
가제 : 나의 고흐 해바라기
저자 : Patricia Sands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10월 1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마음 아프지만 동시에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 USA 투데이 베스트셀러 『Spare Change』의 작가 페트 리 크로스비
* 치매에 걸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여성에게 주어진 2주 간의 여행

영원히 곁에 있으리라 생각했던 소중한 사람이 갑자기 떠나는 것만큼 참담한 일이 또 있을까? 물리적인 이별 못지않게 마음과 생각을 나누지 못하게 되는 이별도 큰 아픔이 된다. 40년 넘게 부부로, 가장 친한 친구로 함께 살아온 아리아나와 벤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여전히 곁에 있지만 정신이 서서히 지워지는 치매가 너무 일찍 벤을 집어 삼키기 시작한 것이다. 자녀들의 지원이 있지만, 아리아나는 거의 모든 부분을 혼자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하지만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벤을 보면 굳은 결심도 덩달아 허물어지고, 평온했던 일상이 지옥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리아나도 점점 힘을 잃어간다.

두 사람이 금슬 좋은 부부로 살 수 있었던 건, 20년 전 아리아나의 부친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견뎠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리스에서 건너온 아리아나의 부모님은 토론토에서 오랫동안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사위인 벤이 물려받게 되었다. 워낙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데다가 성격도 호탕하면서도 침착하여, 벤은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배워 나갔다. 그러나 갑자기 남편을 잃은 아리아나의 어머니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예술사 전문가로 박물관이며 갤러리에서 한창 커리어를 이어가던 아리아나는 과감히 직장을 그만두고 힘을 보탰다. 벤이 밤낮없이 레스토랑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동안 뒤에서 직원들을 보살피고, 회계를 담당하고, 틈틈이 사고 기억에 괴로워하는 어머니도 돌봤다. 부부의 열성적인 노력 끝에 레스토랑은 나날이 번창하고 어머니 건강도 회복되었다. 이제 한 숨 돌리고 두 사람도 조금 편안해질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때, 불길한 징후가 시작됐다. 벤이 자꾸만 중요한 일들을 깜박하고, 말을 하다가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게 고민하고, 작은 일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 벌컥 화부터 내기 시작한 것이었다. 누구보다 유쾌하면서도 절대 화내거나 짜증내는 법이 없었던 사람이라 아리아나는 물론, 딸 페이스와 아들 태드도 당황할 정도였다. 벤도 자신의 변화를 알아채고 주치의를 찾아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고,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전측두엽 치매라는 것이다.

치매 중에서도 유난히 진행 속도가 빠르고 치료법은 없는데다 예후도 알 수 없는 전측두엽 치매.

아리아나는 주치의의 설명을 듣는 내내 눈물만 흘렸다. 벤은 그런 아내를 토닥이며 이겨낼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나는 사이, 두 사람의 안정적인 삶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어느 날 벤은 십 년 넘게 주기적으로 나가던 모임에 혼자 참석하러 갔다가 길을 잃고 12시간 만에 집에서 네 시간 거리에 있는 낯선 도시에서 잠든 채 발견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난폭한 행동이 늘며, 병간호 도우미들을 향해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아리아나가 딸아이와 함께 며칠 전부터 준비한 트리를 단 몇 십분 만에 망가뜨리고는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이 악물고 견디던 아리아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면서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절망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게다가 벤을 지켜야 하는 자신이 자꾸만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가슴을 찌르는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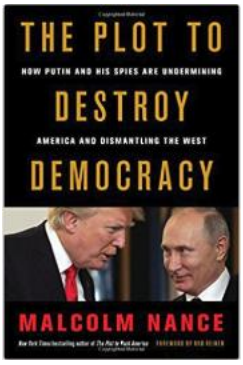
힘들어하는 아리아나를 지켜보던 딸 페이스와 아들 태드는 아버지의 병 때문에 어머니까지 망가지게 둘 수는 없다는 판단으로 특별한 여행을 준비한다. 젊어서부터 그림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술사가가 된 아리아나가 가장 좋아하는 화가, 반 고흐가 깊은 영감을 받은 곳으로 잠시 가서 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린 것이다.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아를은 아리아나가 수십 년 전부터 가장 가고 싶은 곳이었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꿈만 꾸던 곳이었는데 사려 깊은 두 아이들은 바로 아를에서 2주간 진행되는 회화 수업을 어머니를 위해 등록한 것이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나빠진 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리아나는 도저히 꺾이지 않는 아이들의 강력한 권유에 떠밀리듯 비행기에 오른다. 평생 가고 싶었던 곳을 이토록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로 가야 한다는 사실과, 마음 한 켠을 떠나지 않는 벤 걱정에 불안하고 초조하게 시작된 아를 여행은 기대 이상의 선물이 되었다.

레스토랑 운영을 돕느라 그림에서 손을 뗀 지 너무 오래된 탓일까? 마침내 아를에 도착한 아리아나는 이젤 앞에 앉아 텅 빈 캔버스를 하염없이 쳐다볼 뿐 아무 것도 그리지 못한다. 예순 두 살,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분노와 벤에 대한 안타까움이 속에서 용솟음쳐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 다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아리아나는 수업 일정이 끝나기도 전에 토론토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한다. 그러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동료 수강생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아리아나를 붙잡는다. 이들의 손에 이끌려 아리아나는 먼 옛날 반 고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아를의 환상적인 풍경과 남프랑스 특유의 진한 문화적 색채에 조금씩 스며들고, 잃어버렸던 예술적 감각도 천천히 회복한다. 그리고 쨍한 햇살을 향해 고개드는 해바라기처럼 아리아나도 다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패트리샤 샌즈(Patricia Sands)는 소설가로 2010년에 발표한 데뷔 소설 The Bridge Club이 포함된 'Love in Provence'는 2013년 USA 최우수 도서 상(USA Best Book Award)과 2014년 전국 인디 도서 우수 상(National Indie Excellence Award)을 수상했다.

NON-FICTION



제목 : THE PLOT TO DESTROY DEMOCRACY
가제 : 총알, 거짓말, 노트북, 스파이: 러시아의 민주주의 붕괴 플랜
저자 : Malcolm Nance
출판사: Hachette Books
발행일: 2018년 6월 26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정치

*** 초판 10만 부 인쇄 예정**

*** 미 상·하원 정보위원회의 러시아 대선 개입 조사 고문, 의회 청문회에서도 진술한 35년 경력의 안보 전문가가 폭로하는 러시아의 치밀하고 거대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은밀하게 접촉하고 대선 승리를 거두기 위해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겨냥한 러시아의 해킹과 푸틴 대통령의 2016년 대선 개입을 폭로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The Plot to Hack America』를 쓴 작가는 대선 조작을 넘어 미국, 더 나아가 서방 세계를 무너뜨리려는 러시아의 방대한 계획을 이번 신작을 통해 밝힌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의혹이 아닌, 진실이라고 단언한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참모진 모두 러시아와 무수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저자의 주장은 간첩 활동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와 35년간 미 정부 정보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한 독창적인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푸틴 대통령은 왜, 어떤 방식으로 대선에 손을 뻗쳤을까?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가 중심인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전체 그림과 그 중요한 첫 단추가 된 선거 개입 과정을 샅샅이 분석한 책이다.

우익 편향이 강한 미국의 언론들이 미국의 오랜 적이라 손가락질하던 러시아를 갑자기 '친구'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변화다. 반테러 전략 전문가인 저자는 이것이 미국을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거둔 승리라고 이야기한다. 2016년 대선 당시 자칭 자유주의 언론들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에 과도하게 집착한 것,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가 푸틴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에도 변함없이 지지 의사를 굳힌 것, 이 모든 흐름이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다. 저자는 러시아에서 작성된 기밀 정보와 정보전, 사이버전, 전통적인 전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투 전략이 담긴 문건을 토대로 냉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세를 뒤집으려는 러시아의 마스터플랜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저자는 트럼프의 승리를 위한 사이버전,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기가 되도록 교묘하게 조작한 전략,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뿌리부터 흔들리도록 내부에서 공격한 작전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충격적인 사실들

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러시아의 민주주의 붕괴 계획을 저지하려면 어떤 대처 방안이 필요한지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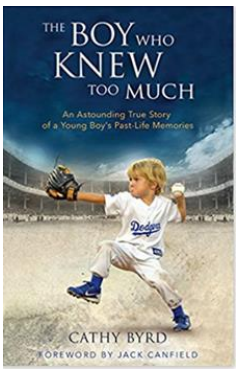
푸틴의 재집권 이후 미국을 향한 러시아의 적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향과 KGB 요원으로 활약했던 푸틴 대통령이 준비한 '적극적인 조치'에 담긴 내용을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푸틴의 노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는 물론 전 세계 우방국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 통찰력 있게 분석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사이버 베어'
1장. 발사된 총알
2장. 모스크바에 보고된 것
3장. 다시 위대한 러시아로
4장. 푸틴의 철학
5장. 떠오르는 러시아, 추락하는 미국
2부. 총알, 거짓말, 노트북, 그리고 스파이
6장. 적극적인 조치
7장. 가짜 뉴스
8장. 인터넷 검색기관 & 러시아 사이버 무기
9장. "헤일 하이드라!"
10장. 독재의 축
(이하 생략, 총 14장,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말콤 낸스(Malcolm Nance)는 35년간 미국 정보부에서 근무했다. 암호학을 전공한 국가안보정책 전문가로 반테러 정보정책, 테러리스트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The Plot to Hack America』를 썼다.



제목: THE BOY WHO KNEW TOO MUCH
가제: 루 게릭이 환생했다: 어느 야구 영재의 이야기
저자: Cathy Byrd
출판사: Hay House, Inc.
발행일: 2017년 3월 21일
분량: 256 페이지
장르: 회고록

*** 20세기 폭스사 제작, 올해 9월부터 영화로 제작 (2019년 봄 개봉 예정)**
*** 스페인,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스페인 판권 계약 체결**
*** "서스펜스 소설처럼 읽히는 회고록. 아이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을 이야기할 때, 저자가 추정하는 이유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 「커커스 리뷰」**

이제 겨우 말을 시작한 어린 아이가, 그 나이에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 그것도 현재가 아닌,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면? 두 살 때부터 오로지 야구 하나에만 모든 관심과 애정을 쏟기 시작한 꼬마 야구 영재, 크리스찬에게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어쩌다 야구에 꽂혔구나, 생각했던 크리스찬의 엄마는 아이들 특유의 고집스러운 관심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놀랍고 당혹스러운 사건들이 줄을 잇자 크리스찬의 독특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 두 살 때 투구하는 모습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엄청난 화제를 모은 크리스찬은 애덤 샌들러가 출연한 영화 <대디 보이(원제: That's My Boy)>에 카메오로 등장한 데 이어 LA 다저스 경기에서 공식 시구자로도 참가했다. 크리스찬의 엄마인 저자는 세상에 공개된 아이의 유별난 야구 사랑의 이면에는 자신이 1920-30년대에 활약한 전설적인 야구 선수, 루 게릭이라고 주장하는 크리스찬의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고 전한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만 공개했던 야구 영재의 전생 이야기는 영리한 거짓말로 웃어 넘길 수 없을 만큼 신빙성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크리스찬의 야구 사랑이 시작된 과정과 허무맹랑한 소리인 줄 알았던 전생의 이야기를 직접 조사하면서 발견한 기막힌 사실들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크리스찬이 처음 야구에 꽂힌 건 어린이 야구단 소속인 몇 살 많은 누나가 경기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였다. 아직 기저귀를 차고 있던 아이는 이후 며칠 동안 하루 종일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공을 던지면서 야구하는 흉내를 냈다. 너무 어려서 야구단에 들어갈 수 없는 나이부터 크리스찬은 끊임없이 야구 이야기만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야구 유니폼만 입으려고 했다. 또래 아이들이 인형이나 비누방울을 가지고 놀 때 크리스찬의 손에는 늘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고, 텔레비전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도 별 흥미를 못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와 남편은 슬슬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독 야구에 매달리던 아이가 심상치 않은 이야기를 시작하자, 저자는 이것이 단순한 열정이 아님을 마침내 인지했다. 크리스찬이 자신은 아빠처럼 키가 크고 덩치도 큰 야구 선수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차를

타고 미국 전역을 돌며 경기를 뛴 이야기며 베이브 루스와의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이야기하는 크리스찬은 자신이 그 유명한 루 게릭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가 전하는 루 게릭의 이야기 속에는 널리 알려진 사실 외에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지극히 사적인 일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전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저자는 아이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염려하면서 정식으로 진단을 받으러 다닌 과정과 함께, 50년 이상 크리스찬과 같은 희한한 사례를 연구해온 버지니아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소속 연구진이 밝힌 내용과 그 일원인 짐 터커 박사와의 만남을 상세히 전한다. 정말 크리스찬은 루 게릭의 영혼이 환생한 아이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저자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가 경험한 귀중한 경험과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놀라운 사실들이 가득하다.

<목차>

서문 - 잭 캔필드(JAck Canfield)
머리말 - 의학박사 에벤 알렉산더(Eben Alexander)
1장. 야구에 푹 빠진 아이
2장. 베이브 루스가 못되게 굴었다고?
3장. 아빠처럼 큰 사람
4장. 옛날 사람의 영혼
5장. 원한
6장. 루 게릭을 찾아서
7장. 홀렸거나, 미쳤거나
8장. 춘곤증
9장. 야구 경기 보러 가요
10. 투구
11장. 나라의 보물
(이하 생략, 총 23장과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캐시 버드(Cathy Byrd)는 UCLA를 졸업하고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MBA 과정을 마친 뒤 10년간 스포츠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다 현재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하고 있다.

제목 : THE EXPERTISE ECONOMY
가제 : 민첩한 재교육이 답이다
저자 : Kelly Palmer, David Blake
출판사: Nicholas Brealey
발행일: 2018년 9월 18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경영

*** 업무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새로운 학습법을 제시한 경영 지침서**

모든 보고서를 손으로 작성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다 컴퓨터가 개발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줄줄이 개발되자 취업을 하려면 그와 같은 최신 기술부터 배워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자격증만 있으면 다 해결될까? 혹은 특정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심층적으로 가르치는 학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면 그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대체로 확보됐다고 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평생 전화를 써온 사람들도 화면을 '터치'하는 것이 너무나 생소하게 느껴지듯이 기술과 지식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마케팅 학위가 있는데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MBA 학위가 있는데 재무제표를 읽지도 못하는 사람,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은 확실하게 쌓았지만 말로든 글로든 소통하는 능력은 영 떨어지는 사람들이 조직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비즈니스 학습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약해온 두 저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쏜살같이 변화하는 산업 현장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핵심 기술과 지식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하는 기업의 고민은 '민첩한 학습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회사에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외부에서 데려오거나 새로 고용하는 대신, 이미 충실히 일하고 있는 기존의 인력을 재교육하고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고 현명하다는 사실을 짚어주는 책이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발표한 2018년 보고서에는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지금부터 2023년까지 기업의 62 퍼센트는 회사 인력의 4분의 1 이상을 재교육하거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과거에는 조직에 최신 기술을 갖춘 인력을 대거 고용하는 일명 '물갈이'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에 한 번 정도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쉴 새 없이 변화하는 현재의 산업 현장에서는 그 간격이 크게 축소됐다. 두 저자는 업무에 가장 요긴한 기술을 갖춘 인력이 사업 성공에 중대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명료하지만, 대부분의 경영진은 그 해결책을 엉뚱한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경영진이 조직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전체 인력 가운데 적절한 기술을 보유한 구성원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조직 전체의 사업 방향은 변화한 환경을 쫓아가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그 일을 할 당사자들이 올바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조차 모르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적응하고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전문가가 전체

인력에 충분한 비율을 차지해야 사업도 흔들림 없이 진행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문가'는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와 발맞춰 기존 인력을 새로 교육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미래에 어떤 기술이 필수가 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학습과 기술 교육이 훨씬 더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새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와 변화의 속도가 일치해야 한다. 이에 두 저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학습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실리콘 밸리와 세계 각국 주요 기업에서 진행한 재교육 성공 사례와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면서 경영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비즈니스 교육의 새로운 개념과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둥이 될 인력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주는 유용한 경영서다.

<목차>

머리말
1장. 학습이 이루어지는 진짜 과정
2장. 학습을 유리한 경쟁력으로 만들어라
3장. 개인 맞춤형 학습법
4장. 과도한 내용은 없애라
5장. 동료의 힘
6장. 올바른 기술이 있을 때 성공한다
7장. 데이터와 통찰력이 바탕이 된 기술 분석
8장. 전문가 보유 상황을 점검하라
결론 - 미래는 이미 시작됐다

<저자 소개>

켈리 팔머(Kelly Palmer)는 업체 'Degreed'에서 최고학습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 링크드인, 야후에서도 학습 관리를 맡았다. 전 세계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이어 왔으며 「Chief Learning Officer」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데이빗 블레이크(David Blake)는 업체 'Degreed'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다. 스탠포드 포드 대학교 교육과학대학에서 선정하는 '우수 기업인(Top EdTech Entrepreneur)'로 선정됐다. 「하버드 테크니컬 리뷰(Harvard Technology Review)」,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 , 「허핑턴 포스트」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FEWER BETTER THINGS
가제 : 촉각과 공예
저자 : Glenn Adamson
출판사: Bloomsbury Publishin
발행일: 2018년 8월 7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주변 환경에 신경을 끄고 사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책" - 「퍼블리셔스 위클리」
* "물건과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와 예시가 풍부하다. 공예를 향한 저자의 열정이 전염된다." - 「커커스 리뷰」
* "민간에 전해진 기술, 문화의 역사를 매혹적으로 결합시켜 수공예의 방법과 목적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 책" -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 관장, 트리스트램 헌트

종이로 된 그림책보다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화면에 뜬 그림을 먼저 접하는 요즘 아이들이 종이 책을 주면 손가락으로 살짝 밀어서 화면이 바뀌기를 기대했다가 안되면 실망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익숙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지금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인형과 장난감을 선물하고 아이들은 잠잘 때나 외출할 때도 인형을 꼭 끌어안고 애착을 갖지만, 그 강도나 열정은 확실히 디지털 이전 세대보다 훨씬 줄었다. 이러한 변화를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까? 손에 잡히는 물질보다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디지털 세상의 컨텐츠가 우리가 접하는 환경의 주가 되는 상황은 과연 바람직할까? 뉴욕 아트디자인 박물관 관장 출신인 저자는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본능적으로 발달시켜온 물질적 대상과의 접촉과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물체와의 친밀한 유대감이 대폭 줄어든 현실을 한탄하며, 이 책에서 다양한 재료와 도구로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고, 디자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화면에 그림으로 뜬 물체를 눈으로만 보고 구분할 경우, 그 물건을 만졌을 때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사라진다. 저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그 물건을 이루는 물질적 환경을 파악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물건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을 '물질 지능'이라 칭한다. 모든 인류가 지닌 보편적인 능력이었던 이 물질 지능은 디지털 시대가 열리면서 점점 특수화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됐다. 모두가 당연히 활용하고 누리는 기술이 아닌,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된 것이다. 저자는 총체적인 물질 지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제는 어떤 물건을 봐도 그것이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늘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건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면 생활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주변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특정한 원재료와 알맞은 도구, 디자인, 기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물건은 미학적으로나 실용적 측면에서 고유한 특징이 배어

있고, 만드는 사람이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저자는 일본의 전통적인 다도 의식과 목공예에서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 다이아몬드를 정확하게 쪼개기 위해 적용되는 기술 등을 예로 들면서 물질 지능의 가치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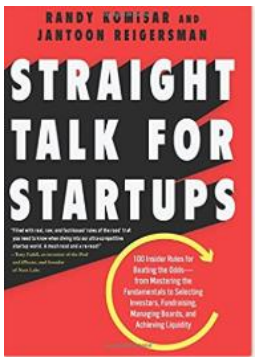
같은 시공간에 있지만 관심은 다른 곳에 향해 있는 경우가 많은 현 세대에 주변을 돌아보고, 집중해서 주변 환경을 구성한 물체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물건들이 끼치는 영향을 인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합판과 알루미늄, 리놀륨 등 특정 재료의 역사적인 활용 방식과 함께 미국에서 바구니를 가장 잘 만드는 사람, 목각 장인의 기술, 서로 다른 물체를 맞대고 문질렀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심취한 예술가, 코코넛으로 조각품을 만드는 사람, 고대의 지혜를 신기술에 접목시켜 독특한 신발을 제작하는 사람 등 흥미로운 수공예 이야기도 접할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주변에 있는 물건에 관심을 갖는 것
1. 펌킨 크릭에서의 삶
2. 공예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
3. 종이를 다루는 문제
4.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
5. 상업의 속임수
6. 장비 갖추기
7. 해보면서 배우기
8. 원형 만들기
9. 하나가 다른 것의 바탕이 된다
10. 면대면
11.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
12. 우리만의 길을 찾아서
(이하 생략, 총 34장, 맺음말로 구성)

<저자 소개>

글랜 애덤슨(Glenn Adamson)은 예일 대학교 영국미술센터 소속 학자로 디자인, 공예, 현대미술 전반을 연구하고 있다. 2016년까지 뉴욕 아트디자인 박물관의 관장을 역임했다. 영국 빅토리아 앨버트 박물관의 연구단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공저자로 참여한 『Art in the Making』과 『The Craft Reader』 등이 있다.



제목 : STRAIGHT TALK FOR STARTUPS
가제 : 차근차근 스타트업 100걸음
저자 : Randy Komisar, Jantoon Reigersman
출판사: HarperBusiness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경영

* "오랫동안 입증된 최고의 실무 방식을 제공하는 책. 베테랑, 신입 투자 전문가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구글 벤처스(Google Ventures) CEO, 데이빗 크레인
* "창업자를 위한 가장 유용하고 재미 있는 책. 여기에 담긴 100가지 규칙은 경영자가 더욱 현명하게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Good Boss, Bad Boss』의 저자 로버트 수턴

벤처 기업 하나 만드는 일이 절대 쉽지 않고 위험성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과감히 뛰어드는 사람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만은 누구에게도 뒤쳐지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실질적인 도움이나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사회나 투자자가 있어도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이끌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은 뒤에 내다 앉아 수동적인 역할에 머무른다. 이런 와중에 벤처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소셜미디어나 유치한 언론 기사에 중점을 둔,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전망을 내놓는다. 투자자가 이처럼 변덕스러운 면모를 보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여기에 기업가가 되고 싶은 '꿈'만 강렬할 뿐 왜, 어떻게 기업가가 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열정 하나만으로 사업에 뛰어들면 이 모든 상황이 뒤엉켜 처참한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투자자로 오랫동안 벤처 기업가들과 함께 일해온 두 저자는 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며 습득한 사업 실패의 원인과 돌파구를 100가지 규칙으로 정리하여 이 책에서 제시한다. 회사를 차렸다가 실패할 경우 그 피해는 창업자 한 사람의 손해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을 위해 애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고 현명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저자가 제시하는 규칙들은 바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확하고 탄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책은 창업의 기본 원칙과 투자자 선택, 자금 마련 전략, 이사회 구성과 관리, 유동성 키우기까지 크게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뉘며 각 부분마다 두 저자가 수십 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다. 사업 계획은 실행 계획과 포부를 키울 수 있는 계획을 분리하여 두 가지로 세워야 한다는 점, 순이익은 옵션이지만 현금의 유동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요소라는 점, 개인적인 재산이 많다고 해서 투자도 잘 한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점, 이사회는 규모가 큰 것보다 작은 편이 오히려 낫다는 점, 이사회 구성원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독립적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사업 인수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 등 유용한 팁이 가득하다.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진 사건 등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론에 그치지 않는 실행 가능한 조언도 함께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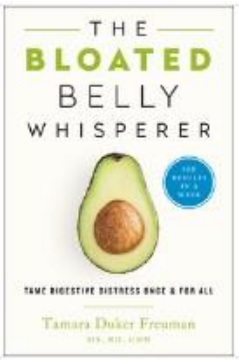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1부: 기본부터 마스터하기 (규칙 1-28)
규칙 1. 벤처를 시작하는 것도 절대 쉽지 않지만 성공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규칙 2. 정상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자 (이하 생략)
2부: 알맞은 투자자 선택하기 (규칙 29-41)
규칙 29. 낯선 사람의 돈은 받지 마라
규칙 30. 벤처육성시설은 사업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투자자를 찾는 곳이다 (이하 생략)
3부: 자금을 마련하는 이상적인 방법 (규칙 42-62)
규칙 42. 리스크를 없애고 자본을 단계적으로 늘려라
규칙 43. 실질가치의 최소화가 자본 마련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4부: 이사회의 구성과 효율적인 관리 (규칙 63-83)
규칙 63. 이사회는 개개인이 모인 집합이 아니라 심의가 이루어지는 단체다
규칙 64. 이해충돌, 상충되는 이해, 모두 방안에 서 있는 코끼리
5부: 유동성 키우기 (규칙 84-100)
맺음말: 우리가 선호하는 규칙

<저자 소개>

랜디 코미사르(Randy Komisar)는 벤처 투자자로, 수십 년간 스타트업과 함께 일해왔다. 베스트셀러 『The Monk and the Riddle』를 비롯해 공저자로 참여한 『Getting to Plan B』, 『I F**king Love that Company』 등 리더십과 스타트업에 관한 여러 편의 저서를 썼다.

잰툰 레이저스먼(Jantoon Reigersman)은 금융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경력을 쌓았다. 소비자 인터넷 업체 'Leaf Group'의 CFO를 맡고 있다.



제목 : THE BLOATED BELLY WHISPERER
가제 : 더부룩한 배, 이제 안녕
저자 : Tamar Duker Freuman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8년 12월 24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

* "속이 더부룩한 증상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CNN 건강, 영양 부문 기자, 『The Beauty Diet』의 저자 리사 드레이어
* "저자는 식생활과 더부룩한 속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실력을 가진 전문가다. 저자와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 『The Small Change Diet』의 저자 케리 간스

속이 불편한 증상이 일상이 된 사람들이 참 많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늘 시간에 쫓겨서, 여유가 없어서 끼니도 제때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다 보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도 그냥 참고 지낸다. 이런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해지면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정도로 추정하고, 커피나 술, 맵고 짠 음식처럼 자극이 되는 음식을 피하라는 조언을 제시할 뿐이다. 정말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한 증상은 그러려니 참고 살아야 하는 문제일까? 위경련이나 위염처럼 의학적으로 병명이 명확히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올바른 치료를 받기가 어려운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친 책이 완성됐다. 미국에서 영양과 식이요법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저자는 우리가 그냥 불편하다, 가스가 찼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분석하여 총 열 가지 원인을 제시하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저자가 수천 명을 직접 만나 상담하고 「U.S. News & World Report」에 정기적으로 게재된 글로 소개한 뒤 무수한 환자, 독자들의 찬사로 이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방법들이 제시된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느끼려면 음식을 입에 넣는 순간부터 배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각 단계가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식도를 구분하는 근육이 제 기능을 해서 위산이나 위에 담긴 내용물이 역류하지 말아야 하고, 위벽과 복벽의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이 정확한 타이밍에 활성화되어 적절히 위와 복부를 늘리고 수축시켜야 한다. 또 위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세포는 적당한 속도로 위에서 소화된 음식을 장으로 보내고, 위와 장에서는 꼭 필요한 효소가 적정량만큼 분비되어 음식을 분해하여 흡수 가능한 영양소 단위로 쪼개야 한다. 그리고 대장에서는 소화가 안 된 섬유질과 노폐물을 모아 적정 속도로 배출시켜야 한다. 저자는 이 각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속이 불편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무작정 소화제나 속 쓰림에 좋다는 약, 음식, 식이보충제를 먹는 대신 불편한 증상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해서 이 단계 중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위해 복부를 상복부와 하복부로 나누어서 책 2부와 3부에서 각각 해당 부분이 더부룩해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 마지막 4장에서는 식생활을 바꿔서 속 더부룩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함께 세계적인 레시피 개발자 크리스틴 키드(Kristine Kidd)가 만든 50가지 유용한 레시피를 제시한다.

어디까지가 생활 방식을 개선해서 고칠 수 있는 증상이고 어디서부터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하는 증상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보다는 '먹을 수 있는' 음식에 초점을 맞춘 권장 식품 목록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정보서다.

<목차>

1부. 머리말
1장. 불편한 속은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뱃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다양한 증상
2장. 이 책 활용하는 법 & 진단 퀴즈 (그냥 뛰어넘지 말 것!)
2부. 상복부가 더부룩할 때 - 위의 문제
3장. 음식에서 비롯된 쌍둥이 같은 문제: 위 마비와 협동장애
4장. 위산 과다로 인한 더부룩함: 전통적인 소화불량
5장. 불편한데 배가 부풀지는 않는 더부룩함: 기능성 소화불량
6장. 트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더부룩함: 공기삼킴증
3부. 하복부가 더부룩할 때 - 장의 문제
7장. 정체로 인한 더부룩함: 변비와 관련된 문제
8장. 세균감염으로 인한 더부룩함: 소장 세균 과다증식증
9장. 위에 가스가 찰 때: 탄수화물 불내성으로 인한 더부룩함
10장. 흡수장애로 인한 더부룩함: 셀리악 병과 췌장 기능부전
4부. 식생활로 더부룩한 속 해결하기
(이하 생략, 11-14장까지)

<저자 소개>

타마라 듀커 프루먼(Tamara Duker Freuman)은 소화기 건강과 의학적인 영양요법 전문가로 널리 이름을 알렸다. 「U.S. News & World Report」의 'eat + run' 블로그와 MSN Health, Yahoo! Health 등에 글을 기고해 왔다.